

# ‘규제의 상징’ 대불산단 전봇대 51개 더 뽑아낸다

### 전남도, 산업부 전선지중화 공모 선정 1,675km 65억 확보 대형 선박 메가블록 등 제조·운송불편 해소 경쟁력 강화

‘규제의 상징’으로 지적받아온 대불산단 내 전봇대 51개가 추가로 철거된다.

전남도는 21일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에서 대불산단 2단계 사업(65억원·1,675km)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불산단은 조성 당시 자동차·기계 중심 일반산단이었으나 대형 선박 블록이나 철 구조물 등 조선해양 기자재기업이 대거 입주하면서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동안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높이 32m 이상의 메가 블록 생산이 증가했지만 낮은 전신주 가공선로(8-12m) 때문에 불편이 컸다. 공장에서 제작한 선박용 블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전신주를 만나면 전선을 절단하거나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특히 공장 입구에 전신주가 있으면 메가 블록 제작이 불가능했다.

대불산단은 넓은 공장 면적과 산단 내 8차선 도로, 인접한 대불항, 많은 숙련 인력 등 블록 생산에 최적화된 조건



대불국가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봇대 51개를 추가로 철거한다. 사진은 대불국가산단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 <전남도 제공>

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총 13개 구간 1,675km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이다. 기존 배전·통신 선로를 땅에 묻고 전봇대 51개를 철거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 구간을 합하면 총 20개 구간 4,286km에 178억원 규모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진행된다.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대형선박 메가 블록 등 제조·운송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면 대불산단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2021년 시작된 전선 지중화 공모사업은 전통시장, 학교, 도시재생지역 등 도시권역에 국한됐으나 전남도의 지속적인 권역을 통해 ‘노후산단’이 추가 반영됐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산업부 공모에 대비해 영암군,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와 전남팀(T/F)을 구성했으며 현장 실사를 거쳐 가장 시급한 구역을 중심으로 공모 대상 지역을 재조정했다. 이후

산업부, 한국전력공사 등을 찾아 직접 메가 블록 운송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설득했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선 지중화 외에도 자동화·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대불산단 블록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겠다”며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등 조선산업 다각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선 지중화 공모는 2025년 사업이 마지막이다. 전남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마련을 위해 추가 전선 지중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의 지속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 “시장님 불편한 질문 하면 안됩니다”

### 광주시 공공기관 간담회 주의사항 전달 ‘질문 제한’ 참여자치21 “시대 역행 관치시대 후진 행정” 비판

광주시가 강기정 시장의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질문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 부터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돌며 ‘강기정 시장 현장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목적은 강 시장과 직원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공공기관 혁신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일부 공공기관에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공공기관 2곳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과 분위기를 고려해 지침 수준의 주의사항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주의사항에는 광주FC, 무등산, 육아 관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증원과 보수, 청사 이전 등 건의 사항은 행사가 끝난 뒤 별도로 취합해 보고하는 만큼 ‘행사장에서는 언급하면 절대 안됨’이라고 적시돼 있다.

강 시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전 검토 안된 내용’도 언급하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마디로 기가 막하다. 아직도 이런 수준의 행정이 광주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이는 시대와 동떨어진 후진 행정이 자치와 분권, 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는 지방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퇴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 참여자치21은 “일방적 주의사

항 전달이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국정 운영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것을 과도한 통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장인 것 같다”는 광주시의 안이한 태도도 국정 난맥을 자초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발언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또 “광주시와 시의회와의 갈등, 군공항 이전 관련 전남도·무안군과의 대립을 보더라도 시장의 리더십과 갈등 조정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광주시정이 잘돼야 광주시민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강기정 시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광주시정을 들여다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공식 문서나 지시사항이 아닌 공공기관 현장 간담회 개최 이후 실무자 간 광범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박선경기자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등 3개 시·도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여행사를 대상으로 ‘2025 호남권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 호남권 3개 시·도, 관광 활성화 ‘맞손’

### 서울서 관광설명회...무안공항 연계 광역 관광상품 개발

광주·전남·전북 등 3개 시·도가 호남권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전남도·전북도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 호남권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행사는 수도권 소재 여행사를 대상으로 광주의 대표 관광지인 무등산·양림역사근대문화마을, 김치축제·광주비엔날레 등 호남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대표축제, 추천 코스를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 위한 범호남권 관광상품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또 호남권 명예 글로벌 홍보 서포터즈로 인플루언서 투르 수노바 구잘(유튜브 구독자 23만명)과 우마로브 후산존(유튜브 구독자 82만명)을 위촉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여행의 새로운 흐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3개 시·도는 앞으로 무안국제공항을 연계한 광역 관광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며 2025년 호남권 관광문화 주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선경기자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특검 촉구  
민주 광주시당, 내일부터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1일 “오는 23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중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8개 지역위원회 별로 설치한 거점 천막당사에서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핵심 당원 등이 피켓시위와 가두 홍보 등을 통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실태와 명태균 게이트 등 국기 문란 행위를 알리고 광주시민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박선경기자

## 여수망마체육센터 ‘전라권 최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전남도는 21일 “여수망마국민체육센터가 2024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 공모”에서 전라권 최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인증 동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

육진흥공단이 주관한 이번 공모는 전국 국민체육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최우수 기관 1개씩 총 5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여수망마국민체육센터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완공된 전국 246개 국민

체육센터 중 전라권(광주·전남·전북) 최우수시설의 영예를 안았다.

여수망마국민체육센터는 퇴근 후 이용객을 위해 마감 시간을 오후 8시50분까지 확대 운영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해 이용자를 온라인으로 공개 추천하는 등 시민 배려 프로그램 운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시원기자

알고당시다

#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